

# 장애·비장애인 배구로 소통...광주서 첫 전국대회 열린다

‘폐퍼저축은행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10월 1일~2일 개최 동호인 대회·장애인 좌식 배구 동시 진행...66개 팀 1400여명 참가 광주 연고 AI페퍼스 출범 1주년 기념...폐퍼저축은행·광주시 등 후원



배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전국 대회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2022폐퍼저축은행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10월 1~2일 여자프로배구단 폐퍼저축은행 AI페퍼스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배구협회(회장 전갑수)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폐퍼저축은행,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광주SNCG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44팀과 장애인 좌식 동호인 클럽 24팀 등 총 68팀 14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 대회 및 장애인 좌식 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국내 배구대회 가운데 생활체육 및 장애인 좌식 동호인 경기가 함께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과 장애인 좌식배구 동호인의 교류로 소통·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경기에는 광주·전남을 비

롯해 서울, 경남, 전북, 충남 등에서 남자 27팀, 여자 17팀이 출전한다. 남자 클럽 3부와 시니어부, 실버부, 여자클럽 2부, 유소년부 등 5개부로 나눠 자웅을 겨룬다.

이중 서울 고흥우주항공팀은 서울 거주 고흥군 향우들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메카로 자리매김한 고흥을 알리기 위해 참가해 눈길을 끈다.

장애인 좌식배구 경기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남자부는 광주, 전남과 서울, 경기, 충남, 대구, 경북,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18팀이 참가한다. 여자부는 광주, 전남과 서울,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6팀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AI페퍼스 배구단의 광주 연고지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배구 붐 조성과 유소년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창단한 AI페퍼스는 연고지 광주에 뜨거운 애정을 쏟았다.

먼저 AI페퍼스는 연고지 협약과 동시에 지역 배구 인재 양성을 위한 유소년팀 지원금 1억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역사적인 팀 창단 승리를 기념하고자 지난 11월 13일 현대건설과의 경기 입장수의 전액(1800만원)을 광주 유소년 배구 발전 지원금으로 기탁했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5일 열린 ‘AI페퍼스 크리스마스 배구의 꿈’ 행사를 통해 광주 문정초와 치



‘2022폐퍼저축은행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진행될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 사진은 광주AI페퍼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광주일보 자료사진〉

평초에 전달했다.

AI페퍼스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방문해 환아들이 성금 20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 나눔’도 실천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가족들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원을 기

탁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업 장려 장학금도 마련, 총 12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총 2억 75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조선대, 순천대석초와 MOU 체결로 지역 배구 발전과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회장은 “이번 전국 어울림 배구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배구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당이 될 것”이라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폐퍼저축은행과 광주시, 시체육회 등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족구협회, 전국대회 종합 준우승



대한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체전부에서 우승한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족구협회가 제5회 대한민국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27일 전남족구협회(회장 장유신)에 따르면 최근 진도아리랑 축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비롯해 체전부(전남도체육회) 우승, 여성체전부 준우승(전남도체육회)과 3위(여수크러쉬), 임원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체전부 준결승에서 전남도체육회는 생거진전 RUN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강동주 투원을 만나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도체육회 박높음은 최우수선수상, 백중환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여성체전부에서는 전남도체육회와 여수크러쉬가 준결승에서 격돌했다.

전남도체육회 팀이 2-0으로 여수크러쉬를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스카이엔젤 팀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여수크러쉬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임원부에서는 전남도(전남족구협회)팀이 전북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종합 준우승을 거뒀다.

관내부에서는 완도고금스타가 우승, 목포이름 JC가 준우승, 영암월출·순천OK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최우수 선수상은 완도고금스타 문호가 차지했다.

족구는 지난 1월 대한체육회 제8차 이사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LPGA 10개 대회 연속 무승...한국 ‘우승 가뭄’ 해결할까

어센던트 대회 29일 개막 김세영·이정은·최혜진 등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석 달간 이어지는 ‘우승 가뭄’ 해갈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은 26개 대회에서 4승을 올리고 있다.

3월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고진영(27),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김효주(27)가 정상에 올랐고, 5월 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에서는 지은희(36)가 우승했다.

이후 6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전인지(28)가 제패한 것이 올해 한국 선수의 마지막 우승 소식이다.

최근 10개 대회 연속 외국 선수들이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데,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10개 대회 연속 우승하지 못한 것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7개 대회 연속 이후 이번이 8년여만이다.

올해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 중에서도 고진영과 전인지가 부상으로 10월에나 복귀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은 29일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니에서 개막하는 어센던트 LPGA(총상금 170만 달러)에 출격한다.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517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김세영(29)과 이정은(26), 유소연(32), 김아림(27), 최혜진(23) 등이 나온다.

지난해 VOA 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손목 부상 때문에 불참한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10월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복귀전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랭킹 2, 3위인 넬리 코다(미국)와 아타야

티피쿰(태국)이 출전해 고진영의 1위 자리를 위협한다.

티피쿰은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2위 최혜진과 경쟁도 이어간다. 우승하면 신인상 포인트 150점을 주는데 현재 1위 티피쿰과 2위 최혜진의 격차는 138점이다.

한국 선수들이 올해 다소 주춤하면서 주요 개인 타이틀 전망도 흐려졌다.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신인상, 상금왕을 주요 개인 타이틀로 본다면 한국 선수들은 2015년부터 최소 하나 이상의 타이틀을 가져갔다. 그러나 올해는 주요 개인상 수상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올해의 선수와 상금은 이민지(효주)가 1위, 평균 타수는 리디아 고(뉴질랜드), 신인상 부문은 티피쿰이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4개 부문 수상자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은 2014년이 최근 사례다. /연합뉴스

## 최규병 9단 역대 14번째 프로 통산 1000승 달성

프로기사 최규병(사진) 9단이 프로 통산 1000승 대기록을 달성했다.

한국기원은 27일 최규병이 지난 23일 편강배 2022 시니어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에서 김승준 9단을 303수 만에 백 2집반승으로 꺾고 1000승 고지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규병은 조훈현(1959승)과 이창호(1842승), 서봉수(1746승), 유창혁(1346승), 이세돌(1324승·은퇴), 최철한(1250승), 서능욱(1178승), 조한승(1114승), 목진석(1073승), 박영훈(1068승), 안조영(1047승), 강훈(1043승), 김수장(1005승) 9단에 이어 14번째로 1000승을 기록한 바둑기사로 기록됐다.

최규병 이후로는 박정환 9단이 989승으로 1000승 클럽 가입까지 11승을 남겨두고 있고, 983승을 기록 중인 강동운 9단 역시 17승을 거두면 1000승 고지를 밟는다.

1975년 입단한 최규병은 입단 13일 만에 제2회 대한기원 승단대회 예선에서 윤희을 당시 초단에 게 첫 승을 거둔 뒤 1987년 7월 100승, 1997년 6월 500승에 올랐다. 1000승을 기록하는 동안 최규병은 2000년 맥스커피매 입신최강전 초대 우승을 비롯해 2019년 제6기 대주배 남녀 시니어 최강자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정직한 후보2
- 2관 정직한 후보2
- 3관 정직한 후보2
- 4관 공조2: 인터내셔널
- 5관 인생은 아름다워
- 6관 인생은 아름다워
- 9관 인생은 아름다워,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미술단의 비밀
- 7관 써대결: 늑대사냥, 애프터: 에버 해피, 전체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일학교
- 8관 써대결: 공조2: 인터내셔널, 육사오(6/45),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미술단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